

“IS, 트럼프 영상 활용” 무리수...역풍 맞은 힐러리

민주당 경선 TV토론서 주장 언론 “사실 확인되지 않아” 트럼프 “영터리 주장” 가세

“트럼프가 이슬람국가(IS)의 최고 용병 모집자다. IS가 더 과격한 지하다스트들을 뽑기 위해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비난한 트럼프의 동영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에서 ABC방송 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3차 TV토론에서 나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 발언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모든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등 트럼프의 과거 선동적 발언이 담긴 영상이 IS전사 모집에 활용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언론이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영터리 주장이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특히 당사자인 트럼프 20일 방송에서 “힐러리가 미친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CNN은 20일 “트럼프가 IS의 최고 용병모집자라는 주장은 익숙하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반(反) 이슬람 발언이 IS의 용병모집을 북돋우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방송은 “트럼프의 영상이 IS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CNN 사실관계 확인

팀이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클린턴 전 장관이 토론 초반부터 기이한 주장을 펼쳤다”며 “그는 IS가 더욱 과격한 지하다스트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슬람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전 장관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무슬림의 입국을 막자는 주장이 인질을 참수하는 광신도나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용병에 사용된다’는 취지의 최근 NBC 방송을 거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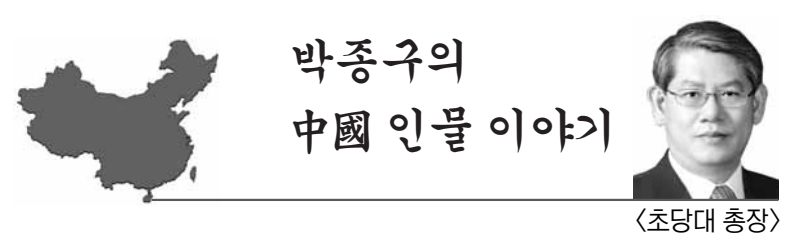
하지만 유명 사실검증 사이트인 ‘폴리팩트’(www.politifact.com)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영터리 주장이라고 가세해 논란은 증폭됐다.

트럼프는 이날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힐러리 때리기’에 몰두했다.

그는 폭스뉴스에 나와 “폭스의 훌륭한 기자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점검했는데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며 “터무니없는 말이며 그녀가 조작한 것”이라고 클린턴 전 장관을 비판했다.

또 NBC뉴스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도 출연해 “클린턴은 모든 것에 대해 미친 듯 거짓말을 한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은 터프함과 강인함을 상징한다”며 “하지만 힐러리는 강하지 않고 약하다. 체력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사기를 쓴 사마천

사마천(司馬遷)은 섬서성 한성현 출신으로 무제때 활약한 사관이다. 생애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중국인이 가장 애독하는 사기(史記)의 저자로 중국 역사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무제때 낭중이 되었고 BC 108년 아버지 사마담에 이어 태사령에 취임했다. 부친 사마담은 20년간 사관으로 근무하였지만 무제의 태산 봉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불허되었다. 사마담은 이를 전후의 한으로 여겼다. 임종 시 아들 사마천에게 상고 이래의 중국사를 서술해 줄 것을 유언했다. “내가 태사령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천하의 역사를 폐기하고 말았다. 내가 죽으면 너는 태사의 직책을 잇게 될 텐데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 사후 태사령에 임명되어 태초역 편찬에 나서는 등 전도양양한 그에게 이릉 사건은 인생의 대반전을 가져왔다. 이릉은 명장 이광의 손자인데

고자 한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BC 93년 사형을 앞둔 입안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는 “정말로 만일 이 역사서를 완성하여-영원히 전하고-유포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때야말로 내가 받았던 치욕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내 몸이 여덟으로 찢긴다 하여도 결코 후회할 일을 없을 것입니다”며 명예회복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기는 영원한 고전으로 그의 이름을 청사에 남겼다. 총 130권으로 분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기, 세가, 열전은 사마천의 독창적 창조물로서 기전체 서술방식의 표본이 됐다. 제왕의 기록인 분기는 황제가 못되었지만 사실상 황제 지위에 오른 향우나 여후도 포함하였다. 공자의 춘추필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사기의 백미인 열전에는 정치인, 군인, 상인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중국 역사의 아버지’ 20년 걸쳐 53만자 집필

이사장군 이광리의 참모로 흉노전쟁에 참여했다가 적의 포로가 되었다. 사마천은 이릉의 흉노 투항을 변호하다가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생식기가 거세되는 궁형(宮刑)에 처해졌다. BC 99년의 일이다. 그는 ‘이것이 내 죄란 말인가. 몸은 망가져 쓸모가 없어졌구나’라며 후세에 이름을 날릴 기회가 사라진 것을 크게 비관하였다.

궁형을 당한 그는 환관이 되어 궁중에서 무제를 섬기고 후에는 중서령으로 영전되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다. 궁형 사건 이후 회고적 언간으로 변모하여 백이, 숙제, 오자서 등 역사적으로 불우했던 인간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된다. 또한 역사를 쓰는 일에 진력함으로써 선비로서의 치욕을 견디고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 노력했다. 복송의 재상 구양수는 사기를 “세상에서 뜻을 잃은 자가 마음에 맺힌 것을 깊이 생각하여, 감격 발분하는 것을 오로지 문장에 나타낸 지서”로 높이 평가하였다.

사기는 절망의 책임 동시에 명예회복의 책임이기도 하다. 태사공자서에는 “정분은 명산에 비장하고 부분을 수도에 두어 후세의 성인군자를 기다리

포함되었다. 춘추나 전국책 같은 기존의 역사서와는 달리 역사를 움직이는 인간 존재를 형상적으로 묘사해낸 독창적 역사서술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기의 배경이 되는 춘추전국시대와 진 말한초시대는 개성 있고 실력 있는 개인의 존재가 강조했던 시대였다. 유럽 열전, 자객 열전, 화식 열전에는 역사의 뒷전에서 역할을 담당한 역사 주체에 대한 애정이 잘 드러나 있다.

사기는 24사 중 근계일학으로 애정의 감정서술이 뛰어나다. 53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20여년에 걸쳐 서술된 역사이다. 후대 사사가 유학적 논리에 크게 좌우되어 서술된 반면 사기는 독립된 입장에서 완성되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인간의 행위가 역사 서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제가 당한 수치를 생각할 때마다 등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흘러내려 옷을 적시곤 합니다” 그의 심경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마오쩌둥은 평소 사기를 즐겨 읽었다. 등장인물의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오직 좋은 역사서를 남긴다는 일념이 궁형의 치욕을 극복케 만들었다.

美 캘리포니아주 공립 고교생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배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이 2017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울 전망이다.

21일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10학년(한국의 고교 1학년생)에 적용되는 역사·사회과학 교육 과정 개정안에 군위안부 문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이른바 성노예인 위안부들은 전쟁전(前)과 전쟁 중에 영토를 지배한 일본군에 끌려갔다”, “위안부는 제도화한 성노예, 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예로서 가르칠 수 있다”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내년 1~2월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5월께 공청회를 거쳐 교육 과정 개정안 완성본 작성에 들어간다. 미국 공립고교 커리큘럼에 군위안부 문제를 넣으려는 움직임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공업단지 댤친 100m 인공산
지난 20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91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선전 산사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령 병사 5만명...IS 부패·사기 심각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유령 군인이 존재하는 등 내부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S 전직 간부 및 조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라크, 시리아 정부군은 물론이고 IS에도 서류 상에만 있는 병사들이 존재해 결국 양쪽에서 유령 부대들이 싸우고 있

는 셈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앞서 작년 말 이라크는 정규군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병사가 5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년여 전까지 IS 편에서 싸웠던 한 반군 지휘관은 “전선에 전투원 250명치의 봉급을 신청한 지휘관이 있다면, 실제로는 150명만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IS 간부들이 이런 일을 알고서는 임금을 전담하는 재무 행정관을 일선 부대로 파견하기 시작했지만 행정관들도 지휘관들 쪽에서 다시 사기극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IS 밑에서 일했던 조직원이나 직원들은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부패한 기존 정부 권력을 내몰았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결국엔 그 정권의 관료주의와 부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또한 IS가 인력 모집을 위해 경제적 보상을 미끼로 내걸면서 정부를 위해 일했던

부패 관리가 IS로 건너가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시리아의 한 약사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부에서 일하다가 횡령 등의 혐의로 해고된 한 보건 관리를 IS가 고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IS를 위해 일했던 한 지휘관은 자신이 있었던 지역의 지도자가 ‘자카트’(일종의 종교세) 명목의 기금을 2만5000 달러(약 2900만원) 들고 달아나면서 동료들에게 “이게 무슨 나라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펫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